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임영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저 아랫동네 누구네 집에서 상량식이 열린다고 했다. 초가집이 하나둘씩 신식 집으로 바뀌던 70년대 초의 일이다. 어린 나이에 상량식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말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새집이 번듯하게 세워진 것을 축하하며 잔치를 벌이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아무튼 상량식이 뭔지는 몰라도 떡과 고기를 얻어먹을 수 있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상량식이 열리는 곳으로 몰려갔다.

벌써 집 마당에는 아이들과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그런데 번듯한 집은 보이지 않고 기둥 뼈대만 서 있었다. 수수깡으로 만든 집처럼 벽도 문도 없이 열개뿐이었다. 집을 이제 막 짓기 시작한 것 같은데 중요한 행사로 여겨지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잔치 음식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는 작은 불안감도 한편에 있었다.

왁자지껄한 가운데 어떤 아저씨가 높은 보 위에 앉아 있었다. 차림새로 보아 집 짓는 목수처럼 보였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얀 광목천을 몸에 휘감고 있었다. 두 다리를 벌리고 보 위에 앉아 있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가운데 쪽으로 오려는 것 같았다. 높이가 2미터를 넘는 곳이라 앉아 있기만 해도 아찔할 텐데 양손을 앞으로 쫓으며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높은 보 위에서 움직이는 목수를 향해, 잘 버틴다, 무서워 떠는 거 아니냐, 하는 농담을 던지는 아저씨들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농담에도 그저 가볍게 웃어넘기며 목수는 침착하게 움직여 얼추 가운데에 이르렀다. 몸에 두른 광목을 풀어 보를 몇 번 휘감은 뒤 양 옆으로 늘어뜨렸다. 아래 있던 아저씨가 광목 끝을 잡아 양쪽에서 넓게 펼쳤다. 그런데 그때 보 위에 있는 목수는 큰 닭 한 마리를 잡고 있었다. 몸에 두른 광목 안에 닭을 넣고 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건네준 것인지 기억나지는 않는다. 높은 곳에 있는 목수에게 닭을 건네 주려면 또 한 사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할 테니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것일 것이다. 어쨌든 내 기억에는 조금씩 움직이던 목수가 어느 순간 닭 한 마리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 칼을 든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아마 그 다음에 무슨 제문 같은 것을 읽는 그런 순서가 진행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날 상량식의 하이라이트는 희생 제의를 치르는 것으로 끝났다. 목수 혼자서 닭 모가지를 땡강 자르고, 붉은 피가 하얀 광목에 뿌려지고, 머리 잃은 닭이 피를 흘뿌리며 하얀 광목으로 날아가고.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엘리아데의 『성과 속』을 읽으며 떠오른 기억이다. 미르체아 엘리아데 Mircea Eliade(1907~1986)는 루마니아 출신의 종교신화학자인데 20세기 사상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엘리아데가 보기에 인간은 태생적으로 종교적 인간이다. 그런 “종교적 인간에게 공간은 균질하지 않다.” 어떤 공간이든 성스러운 공간과 속된 공간으로 구별하여 인식하게 된다. “공간 내부의 단절과 균열을” 몸으로 느끼며 사는 존재가 종교적 인간인 것이다. 성스러운 공간은 “힘이 있고 의미가 깊은 공간”이고, 성스럽지 않은 공간, 즉 속된 공간은 “일정한 구조와 일관성이 없는 무형태의” 공간이다.

이런 공간의 구분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문지방이다. 어렸을 때 문지방에 올라서거나 걸터앉을 때는 물론이고 그저 문지방을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할머니에게 호되게 혼이 난 경험이 있다. 왜 이처럼 문지방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엘리아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집의 문지방을 넘어갈 때에 행하는 의례는 많다. 문지방을 향하여 절을 하거나 몸을 엎드리거나 경건하게 손을 대는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문지방에는 외적의 침입뿐 아니라 악마나 페스트와 같은 질병을 가져오는 힘의 침입을 방지하는 수호신 혹은 수호령이 거주하고 있다. 문지방 위에서 수호신에게 공물을 바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고대 동양 문명(바빌로니아, 이집트, 이스라엘)에서는 판결의 장소를 문지방 위에 두기도 하였다. 문지방과 문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간 연속성의 단절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점에서 중대한 종교적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문지방과 문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이행의 상징이자 매개자이기 때문이다.

(엘리아데, 『성과 속』, 58쪽. 강조는 원문)

성과 속을 가르는 문지방의 의미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흔히 교회는 성역聖域으로 여겨지는데 교회의 문지방을 통해 공간의 연속성이 단절된다. 이런 교회의 문지방을 엘리아데는 “두 세계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한계이자 경계선이고 국경인 동시에 그러한 세계들이 서로 만나고 속된 세계에서 성스러운 세계로 이행할 수 있는 역설적인 장소” 라고 말한다. 성역은 신들이 지상으로 강림하는 곳이기도 하고 “인간이 상징적으로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천상계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있어야 한다.

엘리아데가 보기에 “종교적 인간”은 이런 성스러운 공간에 살고자 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다.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으로 충만된 분위기 가운데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 정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도 괜찮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성스러운 것은 실재적인 것 자체이며 동시에 힘이 있는 것이고 효험이 있으며 생명과 번식의 원천이다. 성스러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종교적 인간의 욕망은 순전히 주관적 경험의 상대성 가운데 간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실제 가운데 주거를 정하고,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효험이 충만한 세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다.

(같은 책, 60쪽. 강조는 원문)

척박한 야생의 환경에서 살아온 이래로 주거지를 정하는 문제는 구성원들에게 언제나 큰 도전이었을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 주거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을 엘리아데는 코스모스와 카오스의 틀로 해석했다. 이 사람들에게는 거주하는 영역과 그를 둘러싼 미지의 영역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 거주하는 영역은 질서가 잘 잡힌 곳이고 이곳이야말로 세계이며, 코스모스(우주)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의 감각과 아주 다른 것인데, 이 근저에는 미지에 대한 깊은 공포가 있었을 것이다. 주거하는 좁은 영역만이 우리의 세계이고 나머지는 전혀 “다른 세계”로 바라본다. 이곳은 유령과 악마와 이방인이 살고 있는 아주 이질적인 곳이고 혼돈의 공간이고 카오스인 것이다.

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만 코스모스인가? 엘리아데는 이곳만이 정화된 곳이고 신들의 뜻에 따라 정해진 곳이며 신들의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미지의 땅, 점령되지 않은 땅을 새로 점령할 때 이곳을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곳이 “우리의 세계”가 될 수 있으려면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신의 우주 창조를 모범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창조 과정이다.

스칸디나비아의 이민들이 아이슬란드를 점령하고 개간할 때 그들은 그 시도를 독창적인 일로 생각지도 않았지만 속된 인간의 작업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에게 있어서 원초적인 행위, 즉 신의 창조 행위에 의한 카오스의 코스모스로의 전환의 반복이었을

뿐이다. 황무지를 경작할 때 그들이 사실상 카오스에 구조, 형태, 규범을 부여함으로써 질서 있게 한 신들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책, 62~63쪽)

“우리의 세계가 아닌 것은 결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점령할 때는 언제나 우주 창조를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엘리아데는 말한다. 새로운 땅을 새롭게 창조하고 정화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땅을 점령하고 십자가로 정화한 일은 근래까지 이어져 왔고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점령에서 정점을 찍었다.

중심에 대한 열망, 세계의 기둥

미지의 땅을 코스모스로 만드는 것, 곧 미지의 땅을 우주화하는 것은 일종의 정화로 이해해야 한다고 엘리아데는 말하며 오스트레일리아 토착민의 사례를 들고 있다.

아룬타족의 아킬파인 전승에 따르면, 늑바쿨라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신화시대에 그들의 지역을 우주화하고 그들의 선조를 창조하였고 또 그들의 제도를 창설하였다고 한다. 늑바쿨라는 고무나무 줄기로 성스러운 기둥인 카우와아우와를 만들고 거기에 피를 바른 후 그 위로 올라가 하늘로 사라졌다. 이 기둥은 세계축axis mundi를 나타내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둘러싼 지역은 거주할 수 있는

곳이고, 따라서 세계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스러운 기둥은 그들 사이에서 의례적으로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목 생활로 옮겨다닐 때도 아킬파인은 항상 기둥을 갖고 다니면서 그것이 기울어지는 방향에 따라 옮겨다녔다. 아킬파인은 끊임없이 장소를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의 세계'에 거하고 동시에 늪바쿨라가 사라져 간 하늘과 교류할 수가 있다.

(같은 책, 63~4쪽)

여러 문화권에 걸쳐 퍼져 있는 세계축, 세계의 기둥, 우주의 기둥을 보여 주는 사례다. 성스러운 기둥이 세워지면서 그 주변은 정화되고 성스러운 공간이 된다.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되는 것이다. 또한 성스러운 기둥을 통해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된다. 이 기둥을 통해 지상, 천상, 하계라는 세 개의 우주 차원이 서로 교류할 수 있다. 또한 이 세계축은 우주의 중심이 된다. 우주의 기둥 주위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여기게 된다. 자신이 사는 마을이나 도시, 신전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런 관념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중국 황제의 수도는 세계의 중심에 위치한다. 거기서는 하지날 정오에는 해시계 바늘이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다. 이와 동일한 상징이 예루살렘 신전에서 발견되고 있다. 예루살렘 신전의 기초를 이루는 돌을 대지의 배꼽이라고 하였다. 12세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아이슬란드의 순례자 드베르바의 니콜라우스는 성스러운

묘에 대하여 “여기에 세계의 중심이 있다. 하지날 태양의 빛이 거기에 수직으로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다.

(같은 책, 68쪽)

엘리아데는 중국과 예루살렘의 사례 외에 이란이나 바빌로니아 등의 사례를 들며 “종교적 인간은 가능한 한 세계의 중심에 가까이 살고자 하는 염원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자신의 나라가 “대지의 중심”에 있고 자기 도시가 “우주의 배꼽”을 구성하고 신전이나 궁전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미치게 될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고 싶을 것이다. 그러므로 집은 소우주 차원에서 우주를 재현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건축 공회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엘리아데가 보기에 “사람이 주거를 선택하는 것은 세계의 창조”를 내포하고 있는 일이다. 세계의 창조는 신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런 신들의 작업인 우주 창조를 모방하는 일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성스러운 주거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의례를 통해 주거지를 창조하는 방법, 곧 코스모스로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엘리아데는 말한다. 하나는 상징적인 세계축을 창건함으로써 집을 코스모스와 동질화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앞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사례에 잘 드러나 있다. 고대 문화의 단계에서 이미 증명된 방법이라고 엘리아데는 평가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바다의 용이나 태초의 거인의 신체에서 세계가 태어났다”는 창조 신화를 의례를 통해 재현하는 것이다. 엘리아데에 따르면 최초의 농경문화 단계에서 생겨난 방법이다. 그런 의례가 어떻

게 생겨나게 된 것인지 엘리아데는 이렇게 말한다.

건축 공회라는 것은, 줄여 말하면 단지 하나의 모방, 이 세계를 낳은 원초적인 공회의 상징적인 모방에 불과하다. 어떤 문화 단계의 시작과 더불어 우주 창조 신화는 거인의 살해를 통하여(게르만 신화의 이미르Ymir, 인도 신화의 푸루샤Purusha, 중국의 반고盤古) 그 창조를 설명하고 있다. 즉 거인의 여러 신체 기관으로부터 여러 우주 영역이 생겨났다. 또 다른 일군의 신화에 의하면, 원초적 존재를 공회로 바친 결과와 그 자신의 본질로부터 생겨난 것은 우주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식물, 여러 인종, 혹은 사회적 계급까지 포함한다. 건축 공회는 이런 형태의 우주 창조 신화에서 유래한다. 만약 어떤 ‘건축물’이 오래 견딜 수 있으려면 (그것이 집이든 사원이든 기술적인 도구든 간에) 살아 있는 것, 즉 생명과 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혼을 옮기는 것은 피를 흘리는 희생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같은 책, 79~80쪽)

집을 지을 때 이루어지는 희생 제의를 멀리 창조 신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종의 상징적인 해석일 텐데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내가 본 상량식에서도 피를 흘리는 의식이 이루어졌지만, 반고의 신화에서 비롯된 의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그저 집터를 지키는 귀신이나 제주도에서 성행한 뱀 신앙의 일종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상량식의 상징적인 의례의 뿌리가 얼마나 먼 곳에 가 닿은 것인지 알아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엘리아데가 이렇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건축의 성스러움을 강

조한 이유는 근대의 주거 양상에 대한 강한 거부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엘리야데가 언급한 것처럼, 르 코르뷔지에로 대표되는 “거주하는 기계”로서의 집에 대한 강한 반감이다. 우리 시대의 집은 재산 가치를 논외로 한다면 기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노동을 위한 휴식의 공간이며 냉장고와 자동차처럼 언제든 팔고 떠날 수 있는 “거주하는 기계”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현대의 탈신성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과학적 사고의 발전 덕분에 우주는 더 이상 성스러운 것이 아니게 되었고 자연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세계에서 엘리야데가 궁극적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비종교적인 인간에게 세계 내에서의 성스러운 실존의 차원을 재발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우리의 전통 사회도 여러 신들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신들이 지배했다기보다는 그런 신들과 함께 살아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곳곳에 자리한 신들은 공기처럼 너무도 당연한 존재로 여겨져 함께 호흡하는 생활을 이어갔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를 잘 전해주는 시가 한 편 떠오른다. 백석의 시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인데, 좀 길지만 전문을 읽어 보도록 하자.

나는 이 마을에 태어나기가 잘못이다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나는 무서워 오력을 펼 수 없다
 자 방안에는 성주님

나는 성주님이 무서워 토방으로 나오면 토방에는 디운구신
나는 무서워 부엌으로 들어가면 부엌에는 부뜨막에 조양님

나는 뛰쳐나와 얼른 고방으로 숨어버리면 고방에는 또 시렁에 데석님
나는 이번에는 굴통 모퉁이로 달아가는데 굴통에는 굴대장군
얼혼이 나서 뒤울안으로 가면 뒤울안에는 곱새녕 아래 털능구신
나는 이제는 할 수 없이 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대문간에는 근력 세인 수문장

나는 겨우 대문을 뺨쳐나 바깥으로 나와서
밭 마당귀 연자간 앞을 지나가는데 연자간에는 또 연자망구신
나는 고만 디접을 하여 큰 행길로 나서서
마음 놓고 화리서리 걸어가다 보니
아아 말 마라 내 발뒤축에는 오나가나 묻어다니는 달갈구신
마을은 온데간데 구신이 돼서 나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맨천: 사방. 오락: '오금'의 평안도 방언. 성주님: 집을 짓고 지키며 집안일을
관장하는 귀신. 디운구신: 지운 귀신. 땅의 운수를 주관하는 귀신. 조양님: 부엌을 주
관하는 귀신. 대석님: 제석신. 식구들의 수명, 곡식, 옷, 화복을 주관하는 귀신. 굴통:
'굴뚝'의 북한 말. 굴대장군: 굴뚝을 주관하는 귀신. 얼혼이 나서: 얼이 빠져서. 곱새
녕: 곱새 이영, 용마름을 틀어서 씌운 이영. 털능구신: 칠능 귀신. 집터와 장독대를
주관하는 귀신. 연자망구신: 연자간의 연자망(연자매)을 주관하는 귀신. 디접: 기접.
화리서리: 마음 놓고 팔을 흔들며 걸어가듯 하는 모양. 달갈구신: 눈, 코, 입이 없이 달갈
처럼 생긴 귀신.)

열은 풍자와 깊은 슬픔이 배어 있는 시로 읽힌다. 전통 사회의 신

들이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신들에 대한 믿음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숨 막히는 현실이었을 것이다. 시의 화자가 보기에 어디를 가나 숨 막히게 조여 오는 온갖 신들뿐이다. 그런 세상에서는 진실로 소통할 친구 하나 만날 수 없다.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제주도는 그야말로 ‘신들의 천국’이었다. 어떤 제주도 민속학자에 따르면 제주도 무속 신의 숫자가 무려 1만8천에 이른다고 한다.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숫자다. 그 많은 신들이 지금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대부분 사라졌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종교적 심성이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 백석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곳곳에 있는 작은 신들 대신에 거대하고 강력한 소수의 신들에 숨 막히는 현실을 노래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보면 엘리야데의 말처럼 종교적 인간이라는 인간의 속성은 결코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종교가 풀어내는 이야기를 손쉽게 받아들이는 인간 사고의 특성을 깊이 탐구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다.

참고 도서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성과 속』(1957), 한길사, 1998년.

엘리아데, 김종서 옮김, 『미로의 시련』(2006), 북코리아, 2011년.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년.

백석, 고희진 엮음,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2007년. 시더